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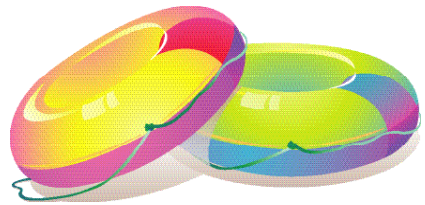


# “ 여름철 전기제품 안전사고 조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여름은 감전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다. 특히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그 위험이 평소의 몇 배나 된다.

해마다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 수는 70~90명, 부상자는 10배인 700~900명에 달한다. 감전사고의 30~40%,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습도가 높아져 쉽게 누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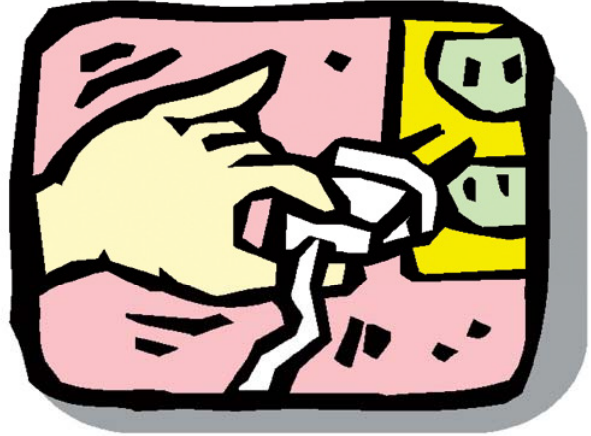


신체 노출이 많아지고, 땀으로 인한 인체 저항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흔히 감전사고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생활 주변 곳곳에 감전사고의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

감전사고는 고압설비를 갖춘 산업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일반 가정이나 세탁소, 세차장, 목욕탕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감전 사고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여름철 전기화재도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누전차단기를 점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썬 경우 이를 감지해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로, 현관 분전반(두꺼비집)에 있는 누전차단기 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눌러 '딱'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이다. 누전차단기가 없는 일반 주택의 경우 세탁기나 식기건조기 등 물기가 많은 곳의 전기기구에 접지선을 설치해야 한다. 접지는 누전된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가전제품을 만질 때 젖은 손은 금물이다. 가전제품 등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기기나 전선에 물기가 스며들어 누전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누전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기공사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을 맞아 집이 물에 잠길 경우, 전기 콘센트 등을 통해 권 물에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만큼 접근을 피해야 한다. 전원을 차단한 뒤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다음 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바람이 불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졌을 경우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신고(국번 없이 123)를 해야 한다. 휴가를 떠날 때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는 모두 뽑고, 전등 스위치는 끄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장마철에는 집이 물에 잠겼을 경우엔 전기 콘센트나 냉장고 모터 등을 통해 고인 물에 전류가 흐를지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분전반의 전원 개폐기를 내린 뒤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다음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한다. 농촌 등에서는 번개가 치는 날 전선이나 금속체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진 경우엔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 신고를 한다. 비가 들이쳐 TV 등에 물기가 들어갔을 경우엔 즉시 전원을 뽑고 대리점에 연락한다.

장기간 집을 비워 두는 휴가철에는 휴가 전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는 모두 뽑고, 모든 전등은 끄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휴가 중 도둑을 막기 위해 전등을 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은 오래 켜놓으면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다. 굳이 전등을 켜 놓고 싶다면 조도 감지 장치가 있는 전등을 사용해 낮에는 꺼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떠나기 전 누전차단기를 시험해보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누전 및 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법·불량제품의 사용이다. 이러한 저가의 불법·불량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충분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써 주위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품 후면이나 밑면의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EK) 및 KS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을 발견 시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02-579-3291)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가정에서 체크해야할 기본적인 여름철 전기제품안전의 기본적인 체크사항이다.

-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휴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격휴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
- ☞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면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
- ☞ 불법·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불법·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EK" 또는 "KS" 등 안전인증 제품 사용)

- ☞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한다.
  -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으면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지 전선을 잡아당기면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될 우려가 있다.
  
- ☞ 누전에 의한 전기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습기가 많은 전기기구는 접지 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 외함 등을 통해 전류가 누설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접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꽃음접속식 누전차단기를 구비·사용해야 한다.
  
- ☞ 누전차단기 작동 이상유무 확인
  - 월1회 이상 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누전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나 화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한다고 해서 누전차단기를 제거하면 위험하니, 반드시 전기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